

Instant comment

LG에너지솔루션: FBPS(Freudenberg) 계약 해지 관련

1. 미국 배터리 팩 제조사 FBPS(Freudenberg) 계약 해지 관련

- 12월 26일 미국 배터리 팩 제조사 FBPS(Freudenberg Battery Power Systems)와의 약 3.9조 원(27.9억 달러) 규모 공급 계약 해지 공시(2024.04~2031.12)
- 해지 사유: 고객사(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에 따른 상호 합의 해지
- 계약 성격: 2024년 2분기 체결된 상용차(버스, 트럭 등)용 배터리 모듈 공급 건

2. OEM 사업이 아닌 신시장 과제의 정리

- LGES 자동차 사업부 내 특정 OEM 팀(Ford, GM, VW 등)이 아닌 '신시장 팀'에서 주도한 프로젝트. 이는 승용차 시장이 아닌 상용차(대형 버스, 트럭 등) 전문 팩커(Packer)를 대상으로 셀과 모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였음
- 특정 고객사를 위해 라인을 새로 깔거나 스펙을 맞춤형으로 개조한 '전용 라인' 사업 아니었음. 기존에 보유한 '공용화 라인'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과제였기에,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라인 가동이 중단되거나 유휴 설비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거의 없음

3. 재무 및 수익성 영향 제한적

- 수조 원 단위의 공시 금액과 달리, 실제 기업의 연간 수익성이나 향후 매출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매출 기여도: 2024년 2분기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매출은 약 1,000억 원대로, 전체 계약액 대비 약 3% 수준에 불과. 즉, 실질적인 매출 발생이 미미했던 과제
- 사업 계획 반영 여부: 이미 해당 프로젝트는 내부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상태로 분류. 따라서 2026년 이후의 주요 매출 계획에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실적 가이드라인 하향 조정 가능성도 낮음
- 추가 비용 리스크: 전용 R&D 비용이나 설비 투자가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자산 손상 처리나 위약금 등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건이 아님

Instant comment

4. 핵심 성장 로드맵은 유지

- 46파이 배터리: 오창 공장 외에 애리조나 공장의 매출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 현재 리비안(Rivian), 벤츠(2개 과제), 포드 등 46파이 수주 과제는 변동성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 중
- 포트폴리오 다변화: 내년 성장의 핵심은 EV보다는 소형전지와 ESS가 견인할 것. GM 등 주요 OEM의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나, 이를 비 전기차 부문에서 상당 부분 메이크업 할 예정

5. 투자전략

리스크가 있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 정리 등 연말 기준으로 추가로 나올 악재성 공시는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

1) 빠른 ESS 전환(미국 라인 전환 속도 가장 빠름) 및 수주 가능성, 2) 2026년 기업 재편 흐름 등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긍정적 추가 흐름 기대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안나)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